

조상래 군수 “새로운 곡성...군민과 함께 활력도시로”

내년 5대 군정 운영 방향 발표...본예산 4천611억 편성 부자농촌·생태관광·맞춤복지 등 민생 회복 예산 반영

조상래 곡성군수가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목표로 5대 군정 방침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조상래 군수가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목표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곡성군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4천611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올해 예산인 4천770억원보다 3.46% 감소했다.

조 군수는 취임 후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큰 기대에 감사하며, 선거 기간 약속했던 5대 분야 43개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군민이 도약하는 활력도시 ▲농민이 살맛나는 부자농촌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관광 ▲누구도 소외없는 맞춤복지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행정의 5대 군정방침을 정했다.

첫째, 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력 넘치는 곡성을 만든다. 교육



조상래 곡성군수가 지난 2일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목표로 5대 군정 운영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발전특구 시범사업, 농촌유학 확대, 곡성형 청년 하우스 타운 착공,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운곡특화농공단지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생활 인구 증

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둘째, 농업 경쟁력을 높여 부자농촌을 실현한다.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청년 농업인 지원, 농산물 온라인 판로 개척,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 섬진강변 특화개발, 계절 꽃을 활용한 관광 개발, 곡성 정원 조성 등으로 관광매력을 극대화하고, 곡성 세계장미축제와 심정어린이대축제의 업그레이드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한다.

넷째, 연령·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 맞춤형 장남 어르신 도우미, 경로당 지원, 기초연금 및 청소년 활동 지

원,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효도택시 확대와 군민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며 교통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구현한다. 주민과의 대화, 소통의 날, 주민 참여예산제, 바로폰 제도, 윈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통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한다.

조상래 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 군민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 예산은 적극 편성했다”며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본격 착수

2032년까지 4GW 풍력 단지 조성...신재생에너지 허브 도약

고흥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사업’에 최종 선정돼 본격 추진한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등이 참여한다.

예비 사업지구의 검증과 풍력 자원계측을 통해 2GW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35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고흥군은 ▲지역산업 연계 개발계획 수립 ▲수산업-해상풍력 공존 연구 ▲전력계통 확보 방안 ▲발전단지 내 규제 검토 등을 추진해 적합 입지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과 어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군민 에너지 연금계획을 수립하고, 42회의 해상풍력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이해와 지지를 얻었다.

고흥군은 2032년까지 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 사업지구에 대한 집적화단지 지정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전환 ▲개발 이익공유를 통한 군민 에너지 연금 모델 개발 ▲해상풍력 입지 개발을 위한 해상 교통망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12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

고흥군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지역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이를 지역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선하며, 지역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앵커기업 육성과 국가산단 내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과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하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전남 동부해역의 중심지로, 주요 해상 풍력단지 및 송전망 대부분이 경유하는 남해안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라며 “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병환 기자



광양 섬진강 망덕포구에 공중하강체험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가 개장해 이용객이 집외이어를 타고 활강을 즐기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 ‘섬진강 별빛 스카이·모노레일’ 개장 이벤트

11-19일 9일간 1만원 탑승 기회

광양시가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인 광양 집외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와 모노레일을 단돈 1만 원에 즐길 수 있는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광양 집외이어 개장식을 개최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개장 특별이벤트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이벤트 기간에는 일반가 2만5천 원에서 60% 할인된 1만 원에 광양 집외이어를 즐길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자

에 한해 모노레일(매표소-출발지) 무료 탑승 기회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후 5시30분에 모노레일 탑승이 선착순 마감된다.

참여 대상은 전 국민으로 탑승 가능 체중 45-105kg를 충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1만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개장을 코앞에 둔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888m 규모의 집외이어로 활강 44인, 회수 141인 등 총 5개 라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출발지까지는 12인승 모노레일이 운행된다.

집외이어 이용료는 일반(19세 이상)

2만5천원, 19세 미만 및 군인 2만원, 13세 이하의 1만원이며 20인 이상 단체는 정상가에서 10% 할인된다.

광양시민 및 명예시민은 대상별 정가에서 각각 50% 감면되며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등은 30%가 감면된다.

매표소에서 출발지를 오가는 12인승 모노레일은 편도 1천원, 왕복 2천원이며 광양시민과 명예시민은 50%,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등은 30% 각각 감면된다.

김성수관광과장은 “단돈 1만원으로 짜릿한 액티비티와 함께 섬진강과 망덕포구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성군,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농림부장관상’

농가 조직화 교육·생산자-소비자 간 소통 등 우수

장성군은 4일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로컬푸드(지역먹거리) 확산 노력과 먹거리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다.

장성군은 ▲농가조직화 교육 ▲생산자-소비자 간 소통 실적 ▲먹거리 유통과정 탄소감축정책 지원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년 출범한 재단법인 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

고 있다. 장성로컬푸드 협동조합 운영을 맡아 개장 2년 만에 누적매출 200억원을 넘어섰으며, 1천70여 농가와 출하약정을 맺고 3천900여 품목을 취급하고 있

다. 이번 수상으로 장성군은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가 처음 시행된 2020년 이래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농업인 등 군민과 함께 달려온 이룬 값진 성과”라며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장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장성군 최우수 지자체 선정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전시 활동 지원

지역 문화예술단체·동아리 회원에 일반 대관 진행

담양군은 4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역 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소개하고, 전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사진)의 일반 대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개관한 한국대나무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죽세공예박물관으로 대나무공예품 전시, 만남의 광장 등을 갖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담양의 주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대나무박물관은 단순 대나무 관련 공예품 전시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한국대나



무박물관의 갤러리를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 회원들의 전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일까지 담양미술협회 21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그림, 공예, 사진,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 작품들이 전시된다.

9일부터 15일까지는 ‘선비가 머물던 곳, 누정’을 주제로 죽향사진동호회 회원전이 개최되며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이어간다. 19일부터 24일까지는 ‘우리들의 시간’을 주제로 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갤러리 그라피본과의 작품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선미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는 공공시설로 발돋움 하겠다”며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순 기자

여수시, 올해 빛낸 시정 1위 ‘여수상품권 특별 할인’

10대 시정성과 발표...공영주차장 조성·여수-거문 폐쇄선 뒤이어

여수시가 시정 기여도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2024년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 성과’를 발표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시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부서별로 제출한 76개의 시책을 서면 심사해 20건을 선정 후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시민소통광장 누리집 등을 통해 총 2천2명여가 참여했으며, 시민 의견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설문 득표수는 50%만 반영해 집계했다.

선정 결과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280억원, 시민 경제 활력 견인 ▲주거·상가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여수-거문 항로 폐쇄선 개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청사 별관건축감립’ 본격 추진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

정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 맨발길 조성으로 건강도시 기틀 마련 ▲여수 미래 100년, 시민과 함께 ‘여수만 르네상스’ 본격 시동 ▲지방재정 위기 극복, 2025 정부예산 4천663억원 확보(68% 반영) ▲청년을 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국내 최초 해양 분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개관 등이 차지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다가오는 2025년에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비전과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속도감 있는 시정 운영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10대 시정성과 외에도 ▲임신축하금 하나라도 확대 지원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관 ▲여수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구역 신규 지정 ▲여수사건 홍보관 건립 등이 많은 득표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여수=김진선 기자

특별재난지역인 장흥읍·용산면서 장흥사랑상품권 사용 최대 20% 할인

장흥군은 “오는 31일까지 장흥읍과 용산면에서 장흥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은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장흥읍과 용산면 소재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 10% 할인에 더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 및 장흥군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성장흥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연계를 개선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